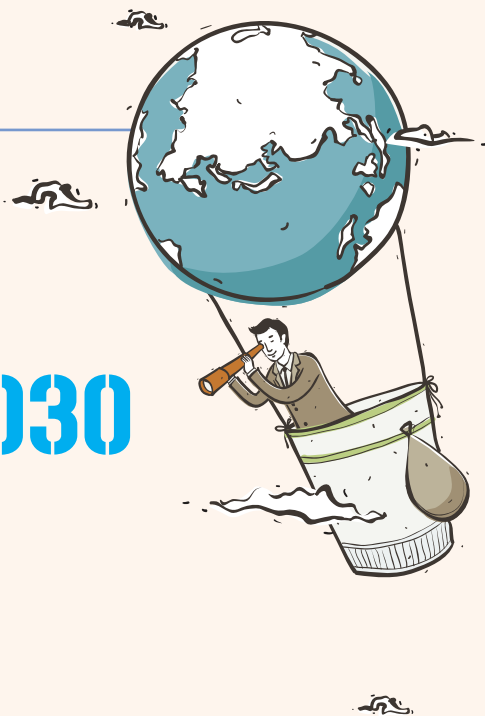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충남 경제비전 2030

강현수 _충남연구원장



비약적으로 성장해 온 충남 경제

최근 30여 년 동안 충남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해왔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2000년대 이후에도 충남 경제는 연평균 8.4% 성장으로 전국 최고 경제성장률을 자랑한다. 현재 충남 경제는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규모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3위, 1인당 GRDP 규모로는 전국 2위에 올라섰다.

한때 농업 중심 경제였던 충남 경제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력 산업들이 충남에 입지한 덕분이다. 대표적으로 서산에 석유화학 5사, 천안과 아산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에 현대자동차, 당진에 현대제철 같은 대규모 제조기업들이 속속 입지하였다. 수도권에 가까우면서도 수도권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떠오르는 중국 시장과 가깝다는 점이 충남의 입지적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대기업들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충남에 동반 입지하면서 생산 활동을 이끌고, 여기서 생산된 물품들이 세계로 수출되면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구가 유입되었다. 특히 충남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하는 대 중화권 수출이 충남 경제 성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다.

충남 경제의 미래에 대한 우려

지금 충남 경제가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도 낙관적인 것은 아니다.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유입되는 기업의 수가 격감하고 있고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충남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주력 제조업의 미래가 그리 밝지 못하다. 중국 경제가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新常态) 시대로 진입하면서 충남의 대 중국 수출도 곤란을 겪고 있다. 충남 경제에 그리 유리하지 않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충남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동안의 고도 성장에 가려져있던 충남 경제 내부의 구조적 약점도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충남 경제 성장은 대규모 제조업이 주도했다. 그러다 보니 충남 경제는 제조업에 비해 농수 산업과 서비스업, 특히 미래 경제를 이끌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취약하다. 또한 아래 표에서 보듯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수출 산업에 비해 내수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충남 내부를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등 수도권에 인접한 북부 지역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나머지 지역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제조업체와 다수의 화력발전소가 집중되면서 수입에너지와 자원을 많이 소비하고 탄소와 환경오염 물질도 많이 배출하고 있어서, 에너지와 자원 가격 변동,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 같은 국제적 변수에 취약할 수 있다.

〈표〉 현재 충남 경제의 성장 구조와 상대적 취약점

현재 충남 경제의 성장 구조	충남 경제의 상대적 취약점
제조업 생산 중심 산업 구조	농수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취약 생산에 비해 소비 취약, 소득의 역외 유출
대기업 중심 구조	중소기업 상대적 취약
수출 (특히 중화권 수출) 중심 구조	지역 내수 기반 취약 중국 경제 변동에 민감
수도권 인접 북부 지역 중심 성장 구조	충남 남부 지역 저성장, 도내 지역 격차
자원과 에너지 다소비, 탄소 다배출 구조	지역 환경 및 주민 건강 피해 국제 자원 가격 상승 및 탄소배출규제 등에 취약



‘충남 경제비전 2030’을 준비하는 이유

충남 경제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면 지금 충남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충남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충남의 미래세대를 위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경쟁력 있는 산업과 기업,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연구개발과 금융, 마케팅 지원은 어떻게 효율화 할지, 어떻게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면서 입지적 강점을 높일 것인지, 갈수록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를 어떻게 보듬을 것인지를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충남 경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충남 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환경 변화를 예측하면서, 충남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활용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충남 경제비전 2030’을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희정 도지사가 이끄는 민선 6기 충남 도정은 ‘행복한 성장’을 도정의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충남도청과 충남연구원은 2030년을 목표로 충남 경제와 충남 도민들의 행복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충남 경제비전 2030’을 만드는 일을 올해 초부터 시작하였다. 그동안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남 경제비전위원회, 기업인을 비롯한 충남 경제 주체들, 15개 시군, 그리고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충남 경제비전이 추구해야 할 목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전략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도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

‘충남 경제비전 2030’의 특징과 의의

지금 만들고 있는 ‘충남 경제비전 2030’의 가장 큰 의의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계획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같은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왔다. 그러나 국가보다 시장의 힘이 커지고 세계화가 진전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중장기 미래 경제 계획 기능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이번 충남 경제비전은 충청남도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고 도민들과 도내 경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충남 경제의 미래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과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같이 지역에서 만드는 계획은 지역 경제 주체들이 현장에서 접하는 생생한 고민을 담기가 용이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현장 지향적 진단과 처방은 계획의 효과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의 가치에도 부응하는 것이다.

둘째, 충남 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전망 속에서 실현가능한 문제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비전 계획들 중 상당수는 낙관적인 장밋빛 목표와 미사여구로 장식된 추상적 슬로건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계획이 실제 정책에 활용되지 못하고 캐비닛 속에 사장되는 서류상 계획(paper plan)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드는 충남 경제비전은 충남 경제의 약점과 미래에 당면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지향한다.

세 번째 특징은 완성된 계획의 내용보다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공공 주도 계획은 담당 공무원이 소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번 충남 경제비전은 다수의 지역 경제 주체들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계획 수립 과정을 지향한다. 또한 이번에 만드는 계획이 완벽하다고 전제하고 이 계획을 일사분란하게 집행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번 계획의 내용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 변화에 따라 향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상황 변화와 필요에 따라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계획 목표와 집행 수단을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고자 한다. 결국 충남 경제비전 2030 수립 과정은 충남 경제를 이끄는 다수의 경제 주체들이 참여하여 충남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충남 경제비전 2030’ 이 충남 도민들의 꿈과 도전 정신을 담아서 충남 경제의 행복한 성장은 물론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선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

